

【논 문】

아베 고보의 ‘만주표상’*

— 귀환자의 노스텔지어 —

박 이 진**

차례

1. 머리말
2. 침략자·식민자에 대한 인식
3. 피식민자에 대한 인식
4. 귀환자의 신체적 기억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본작가 아베 고보의 만주표상이 형성된 과정을 추적한 것으로, 이전까지 선행론에서 지적되어 오던 패전을 통한 고향상실감이라는 논리구도를 좀 더 확장시켜 아베 고보의 전후일본에서의 인식 변화에 착안하여 고향상실자의 시점이 형성된 구도를 고찰하였다.

아베 고보는 전후일본을 대표하는 문학자로 일본의 카포카리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기도 하다. 1948년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그는, 자신이 유소년기에 보냈던 만주를 무대로 한 소설을 데뷔작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패전으로 만주에서 일본으로 강제 귀송 조치에 따라야 했던 아베 고보는 실제 자신의 출신 때문에 아이덴티티의 균열을 겪게 된다. 전후일본 사회에서 만주일본인이라는 출신이 갖는 이질감을 자각했던 아베는 만주에서 서는 지배민족 일본인이었던 자신의 과거 사이에서 극심한 저항감을 느끼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354-2011-1-A00187)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수연구원

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 자신의 고향에서 침략자이자 식민자였던 만주 일본인이 갖는 위화감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아베는, 같은 일본인 사이에 벌어지는 복수극을 그린 『붉주린 피부』라는 작품을 통해 그러한 내적 갈등(혼란)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계획한 복수가 성공한 듯해도 스스로를 향한 자괴감은 일본인이라는 출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된다. 결국 아베 고보는 식민지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을 폭력성을 통해 묘사, 풍자하게 되고, 식민지의 풍경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피식민자의 입장을 사자(死者로 그려내게 된다. 『변형의 기록』이 그것으로, 이 작품은 과거 만주와 전후일본의 피식민자의 입장을 이중적으로 투영한 것이기도 하다. 아베 고보는 전후일본의 미군점령의 현실을 식민지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직시한 것으로 이와 동시에 만주에서의 일본인이 갖고 있던 존재감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만주를 고향이라고 여길 수 없는 고향상실자로서의 위치각각을 인지하게 된다. 탐정과 나에서 묘사되듯이 건조한 날씨와 회오리치는 모래 바람처럼 황량하고 메마른 만주의 표상은 실제 만주의 풍토를 이루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침략자 일본인이라는 사실 관계 때문에 오는 죄책감에 그리움이 넘치는 정겨운 기억으로 고향 만주를 표현할 수 없었기에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베 고보의 인식 변화에 따른 노스텔지어의 형성과정으로, 황량하고 살풍경한 만주의 이미지는 아베 자신의 표상할 수 없는 고향에 대한 내면 풍경을 함유하고 있다.

주제어 : 아베 고보, 만주, 전후일본, 식민지주의, 귀환

1. 머리말

아베 고보(安部公房)는 전후일본을 대표하는 문학자로서 슈르레알리즘적 기법과 실존주의를 실천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1948년 문단에 데뷔한 그는 1950년에 아쿠다가와상을 받으면서 문학성을 인정받지만 관념주의적이라는 평가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았다. 그러다가 1964년에 대표작 『모래 여자』를 발표하면서 일본 아방가르드의 기수로 자리매김됨은 물론, 전후에 와서 해외에 가장 많이 번역되어 나간 작가로 변신하게 된다. 특히 카프카에 비견

되기도 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기도 하다. 또한 그는 일본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크레올론을 펼치는 등 여러 의미에서 전위적인 존재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일본 현대문학의 기수라고 평가받는 아베 고보는 '만주'연구와도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귀환(引揚)작가이기 때문이다. 1924년에 도쿄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10개월에 바로 아버지에 의해 만주로 가서 자라게 된 아베는 패전후 1947년에 일본으로 귀환되었다. 그리고 일본에 와서 본격적으로 작가활동을 시작하게 된 그의 데뷔작이 만주를 무대로 한 『끝난 길의 이정표(終りし道の標へに)』(1948)라는 작품이었다. 그의 만주체험이 소설 창작에 미친 영향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베 고보 연구에 있어 만주체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은 그의 데뷔작 『끝난 길의 이정표』와 1957년 작품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이다. 전자는 끝없는 황야를 헤매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배경이 만주를 원풍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만주에서의 패전 상황과 주인공이 일본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만주체험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만주체험이 아베의 창작세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은 실제 위의 작품들이 발표되었던 당대의 일이 아닌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아베 고보는 하니야 유타카(埴矢雄高)의 추천에 의해 1948년 『끝난 길의 이정표』라는 작품이 발간되면서 본격적인 작가로 활동하였다. "존재감각에 대한 사고가 정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이 작품을 추천한 하니야는 당시 일본문단에서 아베 고보를 가장 지지하던 후견인이라 할 수 있는데, 『벽(壁)』(1951)의 서평에서 하니야는 아베의 작품을 20세기 아방가르드예술의 경지에 빗대어 평가한다. 아베의 소설적 방법론이 '공간의 조형적 표현'에 있음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이는 아베 문학의 원지점들을 알리는 평가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하니야는 자신 역시 대만출신이었지만 아베가 만주출신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다.

아베의 출신이 만주라는 것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벽』을 아쿠다카와 상에 선고하게 된 타키이 고사쿠(瀧井孝作)에 의해서이다. 그는 아베가 “출신지는 만주 심양시이고 쇼와24년 도쿄대학 의학부 졸업으로,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벽』과 같은 버터냄새 나는 작품을 창작해 낸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평하고 있는데, 이는 『벽』에 구사되어 있는 전위적 수법과 우의적 성격이 당시 문단에서 이질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그의 경력과 관련해 언급한 것이다.

1957년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에 이르러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아베의 유소년기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이 작품은 특히 귀환선 안에서 발생한 콜레라 때문에 일본에 정착할 수 없었던 경험이 중요한 모티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간행될 당시에 서평을 쓰고 있는 이지마 고이치(飯島耕一)는 “건조하고 단순하면서 유머러스함을 지닌” 문체론에 입각하여 유럽의 현대 소설풍에 가까운 소설로 이 작품을 평가했다. 그리고 현대일본이 체현하고 있는 비극, 예를 들어 고독이나 연대와 같은 감각을 이 작품은 상정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놓은 작품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반엘리트적이고 반양식적인 대중의 입장에서밖에 전후일본의 생활을 사 고하지 못하는 주인공을 작가 아베의 사상적 결함과 관련하여 비판했다.

아베에게 있어 만주체험이 갖는 의미가 조명되는 것은 1965년 『끝난 길의 이정표』의 개정판 간행 이후로, 아베의 문학적 출발에 있어 만주라는 공간이 부여하고 있는 특성에 주목하기 시작하게 된다. 1966년 이소다 고이치(磯田光一)의 <아베 고보론>은 『끝난 길의 이정표』를 중심으로 그 이후의 작품을 논하면서 아베의 만주체험이 문학창작에 영향을 준 의미를 정신적인 무국적자의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논에 이어 모리카와 다쓰야(森川達也)는 아베는 문학을 위한 예술상의 무국적자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무국적자였다고 만주체험의 의미를 ‘고향을 탈출한’ 시점으로 소급한다. 이소다는 아베가 패전으로 만주에서 경험한 무정부적 혼란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가치체계가 붕괴한 생활공간에 놓인 아베의 상황을 강조한 것이고, 모리카

와는 아베의 작품이 전위적인 창작과 아방가르드정신, 부정의 정신을 강하게 배출하는 이유가 좀 더 근원적으로 일본에서 만주로 이동한 사실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후 『끝난 길의 이정표』와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는 아베의 고향에 관한 인식론을 중심으로 하여 만주체험의 의미를 고찰하는 대표 텍스트로 기능하게 된다. 즉 아베의 식민지체험과 패전체험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 사막과 같은 황야를 헤매는 주인공의 행동에서 아베의 고향인식을 파악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 묘사되어 있는 ‘모래, 건조한 바람, 황야’¹⁾가 상징하는 세계는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가 느끼게 되는 좌절감과 자기인식을 나타낸다는 평가와 더 나아가 일본에 대한 거부나 정착에 대한 거부로 이어진다는 논점이 도출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는데, 아베가 지향하는 고향이란 만주인가 일본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일본인’ 아베 고보라는 아베의 출신과도 연동되어서 일본인의 식민지체험이라는 식민주의 비판과도 관련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아베의 애매한 고향관은 만주에서의 식민자로서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또는 이러한 양가적인 고향인식이야말로 아베의 만주체험이 갖는 의미라는 견지가 그것이다.

또한 아베의 역사적 경험을 카프카와 비교하고 있는 아리무라 다카히로(有村隆廣)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 놓여있던 아베가 만주에서 멸망해가는 국가와 민족을 경험하였다면서 아베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폐허나 불탄 마을에 대한 묘사가 그러한 가혹한 체험을 나타낸다고 분석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만주에서 맞이한 패전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는 맥락에서는 이소다의 논지에 가깝다.

이상, 아베의 만주체험은 고향상실과 같은 ‘상실감의 체험’과 관련해 논해지고 또 『끝난 길의 이정표』와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가 담아내고 있

1) 이러한 이미지는 다른 작품을 분석할 때도 전용된다. 모래, 사막, 건조함, 황야 등의 이미지가 만주의 표상으로서 기능한다는 시각이다.

는 인상이 ‘만주표상’으로 강하게 연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까지의 선행론은 패전의 체험으로 인한 고향의 상실이라는 다소 단순한 논리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작품만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 분석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아베 고보가 고향이었던 만주를 ‘모래, 건조한 바람, 황야’와 같은 살풍경한 이미지로 표상하게 된 이유에 천착하여 그의 고향에 관한 내적 풍경, 즉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은 정론처럼 이야기되는 그의 고향 상실자의 시점이 과연 어떠한 경위를 통해 형성되어 왔는지, 패전으로 인한 귀환이라는 구도를 좀 더 확장시켜 아베의 내적 변화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분석의 예로 살필 텍스트도 지금까지 그의 고향관과 관련해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작품들로 시야를 넓혀서 선행론에서 규정하여 왔던 아베 고보의 ‘만주표상’이 형성된 과정을 추적해 보겠다. 이를 위해 작품 『끝난 길의 이정표』가 발표된 이후 1951년부터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가 발표되기 이전인 56년 사이에 창작, 발표된 작품들을 고찰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2. 침략자 · 식민자에 대한 인식

아베 고보는 1952년에 단행본 『침입자(闖入者)』와 『굶주린 피부(飢えた皮膚)』를 간행하였다. 이 두 단행본에는 다수의 단편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작품을 대표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²⁾ 이 두 작품

2) 『침입자(闖入者)』(未來社)에는 단편 「침입자(闖入者)」(『新潮』1951년11月号)을 비롯해서 「공중누각(空中樓閣)」(『別冊文芸春秋』1951년10月号), 「노아의 방주(ノアの方舟)」(『群像』1952년1月号), 「수중도시(水中都市)」(『文學界』1952년6月号), 「총가게(鐵砲屋)」(『群像』1952년10月号), 이렇게 5개의 단편이 실려 있다.

『굶주린 피부(飢えた皮膚)』(書肆ユリイカ)에는 단편 「굶주린 피부(飢えた皮膚)」(『文學界』1951년10月号) 외에 「시인의 생애(詩人の生涯)」(『文芸』1951년10月号), 「손(手)」(『群像』1951년7月号), 「플루토의 함정(プルートーのわな)」(『現在』1952년6月号), 「침입자(闖入者)」, 「텐도로카카리아(テンドロカカリヤ)」(『表現』1949년8月号), 「이슈의 재판(イノッパの裁判)」(『文芸』1952년12月号), 총6개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안의 내용은 초출표기. 작품명 번역은 필자에

에는 공통적으로 '폭력'적인 묘사가 전면화되어 있는데다가 주인공은 자신을 위협하는 '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1년 11월에 발표된 『침입자』는 당시 일본의 점령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을 침입자로 풍자하고 있다. 침입자들의 행동은 “장남과 차남이 좌우에서 나의 팔을 붙잡고, 신사가 나의 명치를 향해 힘껏 주먹다짐을 했다. 바지가 흘러내린 채 굴욕적인 자세로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³⁾는 표현처럼, 폭력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폭력에 의해 주인공은 결국 죽고 만다. 그런데 동년 10월에 발표된 『끓주린 피부』는 만주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주인공의 복수를 소재로 하고 있다. 복수의 대상이 되는 여자는 주인공 '나'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이고, 부잣집 자산가의 아내였다. 그 여자를 아주 비참하게 전락시키기 위한 주인공의 복수 계획이 폭력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작품이다.

1) 식민지의 침략자가 갖는 위화감

아베 고보가 1951년 같은 해에 과거 일본지배하의 만주와 현재 미군점령하에 있는 일본을 배경으로 작품을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부터 생각해 보자.

우선 『침입자』는 일본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폭력적으로 묘사하여 그 위화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 K의 집에 일가족이 침입해 온다. 그리고 K에게 근대적인 생활감정과 민주적 생활태도, 근대적 문화인의 생활양식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질책한다. 그러면서 “휴머니즘”⁴⁾의 옹호자인 자신들의 입장을 강제하며 폭력행사를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후 초기 일본점령정책에서 미국이 휴머니즘이라는 대의를 갖고 일

의함.

3) 『闖入者』 『安部公房全作品』02, 新潮社1972년판, 210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작품명과 페이지수만 표기.

4) 『闖入者』, 217쪽.

본을 파시즘에서 해방시키고 비군사화와 민주주의의 길로 이끈다는 방침을 엄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50년 냉전구조 속에서 미국은 초기 점령정책을 역으로 전환시키고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은 형해화 된다. 단순히 전승국의 우월감에 젖은 입장을 항변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⁵⁾ 또한 일본의 보수권력파에게도 하나의 레토릭이 되었던 휴머니즘은 급진적인 혁명세력의 저항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 즉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비판언설로서 사용되고 있었다.⁶⁾ 민주주의나 휴머니즘은 점령군에게 종속하게 된 보수정권의 정치이데올로기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전환을 아베는 침입자와 주인공 K의 관계를 통해 패러디하고 있는 것으로, K와 침입자 간의 주객관계는 전도되어서 K가 침입자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끓여낸 피부』의 폭력구도는 『침입자』와 사뭇 다르다. 일본인인 주인공 ‘나’가 만주에서 지배자 위치에 있는 일본인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령한다. ‘나’가 파괴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성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작은 체구의 일본인”으로 “외모는 정돈된 듯 보이나 초점이 맞지 않는 백치와 같은 얼굴에 아리따운 팔다리를 하고 있는”⁷⁾ 연약해 보이기 그지없는 인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인 여성을 상대로 ‘나’가 복수를 다짐하는 이유는 상대가 단순히 자산가의 부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자는 ‘나’의 말에 전혀 거부할 하지 않는다. 어느 날 ‘나’는 혁명으로 점차 파괴되어 가는 도시의 광경을 그린 그림 한 장을 그녀에게 보여준다. 여자는 그 그림을 보고 “일본육군에서 출판한 살육도감에 있는 그림 중의 하나”⁸⁾와 비슷하다며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데, 점차 자신의 마약 금단증상을 그 그림에 대한 공포로 착각하게 된다. 여자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무서운 장면을 매일

5) 磯田光一, 1983, 「占領の二重構造」, 『戦後史の空間』新潮社, 41~48쪽.

6) 五百旗頭眞, 2001, 「保守政治による再生」, 『日本の近代 6 戦争・占領・講和』中央公論新社, 383~394쪽.

7) 『飢えた皮膚』, 『安部公房全作品』02, 新潮社1972년판, 163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작품명과 페이지수만 표기.

8) 『飢えた皮膚』, 173쪽.

같이 악몽으로 보면서 마약중독이 되어 가고, '나'는 그녀를 “역사에서 튀어나온 피부병에 걸린 짐승”⁹⁾에 비유하며 증오한다. 그렇다면 왜 한없이 약자처럼 보이는 일본인 여성을 복수의 상대로 설정하게 되었을까.¹⁰⁾ 이에 관해서 잠시 검토해 보겠다.

『만주일보(滿洲日報)』 1930년 11월 27일자 기사를 보면 “내지의 부인은 어디를 가도 평생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 어느 중국인 여성의 내지여행기가 실려 있다. 만주일본인 여성은 하녀나 시중을 부리고 접 시도 닦지 않고 아침부터 유유자적하며 피곤해 지면 낮잠을 자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부인이라고 하면 일하지 않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긴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¹¹⁾

만주의 일본인 부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주일본인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츠카세 스스무(塚瀬進)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만철사원이나 관동청의 관리는 급료에 외지수당이 붙기 때문에 일본국내의 같은 레벨의 관리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다. 그리고 일본인을 대표한다는 의식이나 만철사원의 아내라는 간판 때문에 자신의 분수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 했다고 한다. 또한 만주에서의 삶은 일본국내와 같이 자연이나 혈연에 의해 영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소원하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부인들은 단조롭고 외로운 인간관계로 인해 고급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¹²⁾ 따라서 만주일본인 부

9) 『飢えた皮膚』, 173쪽.

10)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우선 점령기의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남성성’대 ‘여성성’의 대립구도로 비유하여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선상에서 파악하는 의견도 있다(磯田光一, 1983, 『性とそのタブ』, 『戦後史の空間』新潮社, 124~129쪽). 그리고 ‘나’가 심리조작으로 부인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감시자와 수인된 자의 관계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감시자의 역할인 ‘나’는 대중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여 과학적인 심리조작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인 부인은 자기상실을 한 소외상태에 있는 대중의 역할을 한다(石橋佐代子, 2003, 『「存在象徴主義」と「ひとつの世界-『終り道の標へ』から『飢えた皮膚』まで』, 『名古屋近代文學研究』20, 56~58쪽).

11) 『滿洲日報』1930年11月27日付「在滿日本婦人は此の言を何と聞く」.

12) 塚瀬進, 2004, 『在滿日本人のなかの子供と女性』, 『滿洲の日本人』吉川弘文館, 186~188쪽.

인의 삶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그들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존재인 듯이 보이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주일보』에 실린 중국인 여성의 놀람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이렇게 만주의 ‘일본인 부인상’은 오족협화라는 이상적인 슬로건과는 다르게 계급사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으로, 민족 간의 위화감을 고조시키는 존재로 비추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끓주린 피부』에 등장하는 ‘일본인 부인’은 ‘나’의 폭력적인 계획에 빠진 약자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식민지에서의 위화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이다. ‘나’가 “역사에서 튀어나온 피부병에 걸린 짐승”에 여자를 비유한 것도 그러한 만주 식민지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일본인의 위화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작품 『끓주린 피부』에서 전개되는 폭력은 이렇게 침략자이자 식민자였던 일본을 향한 복수이다.

2) 침략자이자 식민자 일본인에 대한 증오

갑자기 고급승용차 한 대가 전신주정도로 높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와서 내 앞에서 딱 멈추었다. 턱이 튀어나온 하얀 제복을 입은 조선인 운전수가 재빨리 돌아서 반대편의 문을 열었다. (중략) 여자는 대문 안쪽으로 보이는 아카시아 숲 풀 속으로 사라지고 승용차는 떠나 버렸다. 땅아지만큼이나 커다란 개를 데리고 나온 중국인 하녀가 대문을 닫고는 개를 풀어놨다.¹³⁾ (인용의 번역은 모두 필자에 의함. 이하 생략)

고급승용차를 타고 조선인 운전수와 중국인 하녀를 부리며 넓은 저택에 사는 여자는 식민지의 부유한 일본인 자산가의 부인이었다. 주인공 ‘나’는 그녀가 사라진 후, 노상에서 만두를 팔고 있는 중국인 노파를 칼로 위협하여 만두를 빼앗으려 하는데,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 분노가 밀려오고 그녀를 향해 복수를 하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의미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다.

13) 『飢えた皮膚』, 163쪽.

‘나’가 고안한 복수의 시나리오는 이러했다. 불가사의한 전염병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자신의 예방법을 사용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자를 속이는 것이다. 그 불가사의한 전염병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인간의 몸 색깔이 변하는 증상을 나타낸다는, ‘나’의 보호색 인종설에 관심을 갖게 된 부인은 마침내 ‘나’를 찾아오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피부가 사회 발전 속도를 전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대용으로 의상(衣裳)을 통해서 뒤떨어짐을 만회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지요. 욕망에 만족이라는 글자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욕망이 결국 -만약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피부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킬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¹⁴⁾

즉 의상은 인간의 사회적인 계급을 나타낸다. 그런데 인간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게 되면 피부까지 변하게 되는데, 피부색의 변화가 그 증후로 예를 들어 “빨강은 정욕이 달아오름을, 노랑은 자신만만한 자부심의 감각을, 초록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비슷한 냉기를, 파랑은 권태, 보리는 로맨틱한 전율을, 검정은 화가 날 정도의 아픔을, 하양은 응석부리는 듯한 매끄러움을”¹⁵⁾ 의미한다고 말한다. 여자는 자신의 얼굴빛이 빨개졌다 싶으면 다시 파래지고, 파래졌다 싶으면 또 검게 변하고, 검어졌다가 금방 초록으로 바뀐다는 생각에 겁을 먹는다. 정욕과 태만, 분노와 죽음의 불안, 자만과 같은 감정으로 인해 색이 변해가는 여자의 피부는 바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 늘 굶주려 있는 욕망 그 자체의 표출인 것이다. 또한 가난한 주인공 ‘나’가 자산가의 여성을 전락시킨다는 구도 역시 ‘나’의 욕망을 그 여성이 대리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 즉 제목 ‘굶주린 피부’의 의미는 가난하고 굶주려 있던 ‘나’의 욕구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를 향한 ‘나’의 복수는 그저 단순히 굶주림 때문만은 아니었

14) 「飢えた皮膚」, 167쪽.

15) 「飢えた皮膚」, 170쪽.

다. 복수가 진행되던 도중에, 그리고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나’는 만족감에 희열을 느끼며 지금까지 굶주려 있던 자신을 일순 망각하기도 한다. 여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인지 “식민지의 지배계급을 과시하는 옷”¹⁶⁾까지 입고서 거리를 어슬렁거린다. 그러나 곧 여전히 굶주려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의 굶주림이 빈곤한 생활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한 증오심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일 본인 부인은 양장이 잘 어울리는 자태로 서서 마치 아무 것도 보지 않고 있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직후 만두를 파는 중국인 노파는 ‘나’의 강도행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동정하며 2개의 만두를 더 챙겨서 주머니에 넣어준다. 그 순간 ‘나’는 “어떤 칼도 닿지 않을 정도로 깊숙하게 그 내장 바닥까지 도려내 주겠다. 어떤 독약도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몸속 구석구석까지 썩도록 만들겠다”¹⁷⁾며, 여자를 향한 처절한 복수를 결심하였다. 그런데 복수를 해도 굶주림은 심해질 따름이었다. 이렇게 ‘나’의 굶주림은 증오의 깊이와 복수에 대한 깊은 욕구를 모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부인은 마약을 사기 위해 남편의 인감도장을 몰래 빼내어 ‘나’에게 건넨다. 그리고 부인은 발광하고 그녀의 남편은 의문의 파산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는 북쪽 국경으로 도망쳐 복수의 성공을 축하하며 러시아소녀의 노래를 들으며 그 자산가의 소식을 신문에서 읽게 된다. 그리고 “어느 사이엔가 여자의 이름이 나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나’의 피부는 어두운 초록색으로 변하며 소설은 끝이 난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의 얼굴 색이 초록으로 변한 것은 그 복수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복수의 대상이 자기 자신으로 바뀌었음을 자각한 주인공 ‘나’는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느끼게 된 것이다.

『굶주린 피부』는 GHQ와 일본정부의 협력 하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16) 『飢えた皮膚』, 172쪽.

17) 『飢えた皮膚』, 165쪽.

했던 귀환사업(引揚事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시기에 쓰였다. 아베 고보는 이러한 귀환사업의 진척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굶주린 피부』의 ‘나’가 마지막에 만주 최북단의 국경지대로 도망을 가서 경계를 건너 온 러시아 소녀의 노래를 듣는다는 설정이 이를 시사한다. 또한 복수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나’가 느낀 끝나지 않은 복수에 대한 예견도 당시의 일련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귀환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항만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복수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1954년 작품 『변형의 기록(變形の記録)』을 분석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다.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적고 있는 포츠담선언의 제9조는 군인 및 군속의 복원을 명하는 조항이었다.¹⁸⁾ 패전으로 구식민지에서 군속관료나 군사들이 먼저 철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수의 ‘귀환 체험담’에 증언이 남아있기도 하다. 1945년 7월 26일, 미·영·중의 3국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에 따라 일반의 일본인들은 시간차를 갖고 1945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귀환을 시작한다. 그러나 패전 직후에는 일반의 재만일본인의 귀환은 불분명한 채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체계를 갖추어 집단적으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GHQ의 ‘완전히 인도적인 방책’ 아래 조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지령에 의해, 1946년 3월에 귀환원호청을 설치하면서 서부터이다. 그리고 1946년 4월, 소련군의 철퇴로 귀환사업은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일반의 일본인들의 귀환은 전후처리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¹⁹⁾

이렇게 해서 1950년 집계에 의하면 거의 95%에 달하는 귀환이 완료되고 624만 명을 상회하는 인구가 일본으로 이동되었다.²⁰⁾ 그러나 소련군감 관

18) 高崎達之助, 1953, 『滿洲の終焉』實業之日本社, 330~334쪽.

19) 蘭信三, 2000, 『引揚援護の記録』解説, 厚生省編集, 『續々・引揚援護の記録』クレス出版, 1~3쪽.

20) 厚生省編集, 2000, 『引揚援護の記録』クレス出版, 通計資料参考, 2000년에 복간된 후생성 편집의 귀환원호에 관한 기록은 『引揚援護の記録』, 『續・引揚援護の記録』, 『續々・引揚援護の記録』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귀환사업 관련 자료는 이 자료에 의한다.

할구를 중심으로 한 귀환사업은 좀처럼 진전이 없었다. 외교권을 갖지 못했던 일본정부를 대신해서 GHQ가 소련에게 3번씩이나 요청했지만 소련 측에서는 억류하고 있던 일본인들의 총수나 사망지수에 관해서도 침묵을 해왔다.²¹⁾ 그리고 1950년 4월에는 소련에 억류되었던 일본인의 귀환이 모두 종료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면서 일본 내에 파장이 일어난다.²²⁾ 이에 관한 대책으로 중의원에서는 ‘재외 억류동포 귀환촉진에 관한 결의’ ‘귀환문제에 관한 국회의 결의’ 등을 준비하여 국련 총회에서 그 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귀환사업이 국제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점은 중요하다. 즉 이때부터 귀환사업으로 남겨진 재외민간의 일본인들이 ‘난민’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²³⁾ 이렇게 해서 귀환문제는 일본과 소련의 관계를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냉전구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소비에트연방이라고 불리던 소련의 관리지구는 만주의 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흑룡강 일대나 치치하르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베의 소설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아베 고보는 처음 데뷔 후 1946년 작품 『까마귀 늪(鴉沼)』, 『증오(憎惡)』, 『이단자의 고발(異端者の告發)』 등에서 자신이 자라왔던 봉천(奉天)을 무대로 일

21) 1949년 5월에 발표된 소련의 다스통신에 의하면 9만 5천 명의 잔류일본인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일본에서는 37만 명이 넘을 거라고 집계했다. (『續・引揚援護の記録』資料3參考).

22) 소련의 다스통신사는 22일 방송에서 일본인 포로송환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예외적으로 잔류하고 있는 일본인은 전범과 병자 2468명뿐으로 971명은 이미 중국으로 인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GHQ는 아직 30만 명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하고 일본 국내에서도 다스통신의 발표에 반격을 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通引揚完了』を發表, 『朝日新聞』 1950.4.23, 1면) 그 후 소련은 다시 ‘귀환작업 완전히 완료’라는 기사를 발표하고 미국의 국무성은 ‘소련의 항의거부’로서 반격했다. (『朝日新聞』 1950.6.10, 1면)

23) 市野川容孝, 2007, 『難民とはなにか』, 『難民』, 岩波書店, 120~12쪽.
씨의 자료에서 당시 국회의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재인용해 보면 “이 당시 어느 정도의 일본인이 남았는지에 관해서는 북만(北滿)에서 약 1만 5천 명 정도로 예측되는데, 연락이 불충분하고 구출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북만 일체에 개척단과 같은 사람들이 다수 남겨져있었던 합니다만, (중략) 약 1백 5십 명의 난민이 잠시 하얼빈에 머물렀던 겁니다.”(1949년 11월 18일, 國會會議錄 「在外同胞引揚問題に關する特別委員會」)라는 내용이 있다.

본인과 중국인의 역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전개해 왔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순수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강요하는 전후일본의 국민 통합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주인공들을 묘사했다.²⁴⁾ 1950년 『끓주린 피부』에서는 러시아로 이동한 일본인, 그리고 후에 1957년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에서는 소련에 억류된 소년을 주인공으로 그 귀환 과정을 묘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베가 귀환문제를 둘러싸고 개입되어 왔던 러시아의 역관계를 시야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²⁵⁾ 또한 『끓주린 피부』에서의 ‘나’가 일본인 부인에게 복수를 한 뒤 북만(北滿)의 러시아 국경지대로 도망친 배경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재외일본인이 있을 수 있는 장소로서 일본의 외교적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북만의 소비에트 국경지대밖에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베가 일본의 영향권 밖으로 도주하는 주인공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일본인이면서 식민지의 일본인에게 복수를 결심한다는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침략자로서의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사고를 당시 아베 고보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피식민자에 대한 인식

1954년에 창작된 『변형의 기록(変形の記録)』은 소련군 침공이 시작된 날을 전후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피난 도중에 발생한 콜레라 전염병이나 비적

24) 박이진, 2012, 「귀환자(引揚者)의 ‘전후’: 전후일본의 균열지점」 『比較日本學』제27집.

25) 당시 귀환문제를 다룬 기사로 『朝日新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951년 8월 16일자 「억류자 귀환에 관한 조항을 1항으로(御留者引揚げに一項)」이라는 제목으로 재외억류방인의 귀환문제는 일본정부의 희망대로 강화조약에 삽입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또 1953년 3월 23일자에서는 「고생했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ご苦勞様お歸りなさい)」라는 제목 아래 중공귀환자들을 태운 마이쓰루항에 도착한 흥안선(興安丸)의 사진을 실고 있고, 이 기사에 이어서는 「걱정은 귀직(心配なのは就職)」이라는 내용으로 귀환자들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1956년 10월 20일자에서는 일소교섭에 따른 「귀환의 전망(引揚げの見通し)」을 주요 기사로 다루었다.

의 반란, 그리고 먼저 철수했던 관동군에 관한 이야기 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후 1957년에 발표된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가 일반의 만주일본인의 귀환을 다룬 것이라면 『변형의 기록』은 일본 군인들의 귀환을 다룬 소설인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앞서 2장에서 다루었던 『끓주린 피부』에 나타나 있던 아베 고보의 식민지에 관한 비판적 사고가 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식민지의 피식민자를 묘사하고 있다.

1) 사자(死者)의 등장

8월14일, 콜레라에 걸린 나를 부대는 마구간에 가둬놓고 출발해 버렸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역시나 북쪽에서 패주해 온 다른 부대가 지나갔다. 나는 마구간에서 기어 나와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춰서거나 뒤돌아보지 않았다.²⁶⁾

콜레라에 걸려 부대로부터 버림받은 주인공은 북으로부터 패주해 오는 병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 오히려 콜레라가 전염되는 것이 무서워서 장교들은 주인공을 총살해 버린다. 그 뒤로 주인공(나)은 죽은 육체에서 이탈된 ‘영혼’이 되어 눈을 뜨며 이 소설은 전개된다.

장교는 모두 4명이었다. 소장(少將) 하나, 중좌(中佐) 하나, 소위(少尉) 둘. 나를 죽인 건 소위 중 하나이다. 비교적 소형의 트럭이긴 했지만 넷이 타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여분의 공간에는 빼곡하게 짐들이 쌓여있었다. 반듯하게 사각으로 정리되어 있는 짐들은 식량과 탄약과 가솔린이다. 나머지는 흔해 보이는 이삿짐처럼 잡스럼게 쌓아놓은 잡동사니이다. 스토브, 접이식 의자, 종이로 싸 천황의 사진, 슬리퍼, 천막, 주전자, 주석으로 도금한 저수용검, 입욕용 드럼통, 한 되의 병…… 그리고 그렇다, 일척 정도 되는 진무천황의 브론즈상이 있었다. 보온용 탕파도 있었다.²⁷⁾

26) 『変形の記録』, 『安部公房全作品』05, 新潮社1972년판, 179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작품명과 페이지수만 표기.

영혼만이 남은 '나'는 길에 널부러져 있는 자신의 육체를 보고도 또 트럭이 그 육체를 짓밟아도 무덤덤하게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자신을 썩 죽인 장교들의 트럭을 타고 그들과 함께 이동한다.

남쪽을 향해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지도 한 장에 기대어 이동하는 트럭. “우리 황군이 망하지 않는 한, 병대는 죽어서도 사는 것이야”²⁷⁾라는 대화를 나누는 장교들 사이에는 자못 비장감이 감돌고, 잿빛의 지평선을 향해 트럭은 계속 달린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하고 있는 소위(‘나’를 죽인 인물)가 중좌의 명령에 거역하게 되고, 트럭에서 내리려는 순간 다른 장교가 총으로 사살해 버린다. 그리고 그 소위도 사자(死者)의 영혼이 되어 ‘나’와 함께 트럭에 올라 목적지 P마을을 향해 간다. 그러던 중, 어느 중국인 마을을 통과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미 모두 죽어서 죽은 청년들과 노파가 그 트럭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산자들의 눈에는 보일 리가 없고 죽은 ‘나’와 소위에게만 느껴지는 마을사람들의 영혼. 그런데 트럭에 타고 있던 장교들과 죽은 마을사람들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열세에 몰린 트럭은 도망쳐 버린다. 그리고 그 트럭에서 한 사람이 내려 사자들과 남게 되는데, 바로 각하였다. 천황의 사진을 품에 안고 일본으로 돌아가 금붕어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맥락 없는 말만을 반복하는 각하. 각하는 작품 내에서 산자라기보다는 환영처럼 존재한다. 처음에 ‘나’가 영혼만 남아 트럭에 탈 때에도 각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장교들이 말다툼을 하는 중간에 갑자기 등장한다.

“모두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라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거야”

“중좌님, 콜레라는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대를 구하기 위험입니다.”

“병대가 아니라 너는 인간이길 바랐던 걸 테지. 겁쟁이 같은 생각이다.

27) 『変形の記録』, 180~181쪽.

28) 『変形の記録』, 181~182쪽.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콜레라가 자리는 거야. 콜레라를 없애려면 인간을 죽이면 그만이지.”

“P마을로 가는 거다. 츠치무라중좌, P마을로 가.”라며 각하가 칼집으로 중좌의 낡은 군화 뒤축을 두드리며 아우성쳤다.²⁹⁾ (밑줄은 필자에 의함. 이하 생략)

그리고 “너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고향에 돌아가서 금붕어를 키워야 한다”며 각하는 년센스같은 말만을 되풀이 할 뿐이다. 그런 각하가 트럭에서 내린 것을 본 ‘나’와 소위는 그도 마찬가지로 사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P마을까지 동행한다. 그런데 P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각하는 모습을 감춰버린다. 각하 대신에 숨이 곧 끊어질 듯한 일본인 부랑아와 그 소년의 영혼이 있었다. 이 소년은 국경의 개척단으로 가족과 함께 피난하던 중에 P마을에서 양친이 콜레라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³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년은 이미 영혼이 되어 있는데 그의 육체는 죽지 않는 것이다. 각하가 소년의 육체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즉 각하는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를 빼앗아 삶을 지속해 온 혼령으로, 소년의 몸을 한 채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남겨진 사자 3인은 “놈이 죽을 때까지 감시의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각하의 뒤를 쫓아 기묘한 여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죽어서 영혼이 된 채로 산자들의 세계를 관찰하는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는 『변형의 기록』은 아베가 만주에서 패전을 맞고 극한의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농후하게 반영되어 있다.³¹⁾ 죽음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육체는 사멸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설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변형의 기록』은 사자의 등장을 소재로 하는 출발점에 있는 작품으로,

29) 『変形の記録』, 184쪽.

30) 『変形の記録』, 195쪽.

31) 有村隆廣, 1998, 『安部公房の最初の作品集「壁」—フランツ・カフカとルイス・キャロルの影響』, 『言語文化論究』9, 34쪽. 아리무라는 이 논문에서 아베의 변신기법의 근저에 그의 절실한 원초적 체험이 존재한다고 하며 그것이 루이스 캐롤과는 다르고 카프카에 가깝다고 평한다.

각하의 년센스같은 모습을 통해 전쟁 중의 제국일본을 회화화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왜 사자들을 묘사하고 있고 또 소년의 육체를 빼앗아 사라진 각하의 행방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2) 식민지의 풍경=피식민자

1945년 8월 15일 당시 약 660만 이상의 일본인이 식민지에 거주했다. 그 중 반수를 차지하는 330만 명은 군인이나 군속 관계자들로 이들은 포츠담 선언 제9조에 따라 '복원청(復員廳)³²⁾ 주도로 본토로의 '복원(復員)'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945년 10월 18일, GHQ는 후생성을 일반인에 대한 귀환사업의 중앙책임청으로 결정하고 11월 24일에 지방귀환원호국(地方引揚援護局)을 열어 나머지 일반의 일본인들을 수용할 준비를 갖춘다.³³⁾ 그러나 외지의 혼란한 정세로 통제가 힘들게 되자 1946년 3월, 귀환원호청(引揚援護廳)을 국외에 세워 4월부터 본격적인 집단 귀환을 진행하게 된다.³⁴⁾ 이후 1950년까지 약 95%에 달하는 624만 명이 일본으로 이동되고, 3년여의 공백기를 거쳐 1953년에 다시 재개된 귀환사업³⁵⁾은 1958년까지 공식적으로 629만 명을 상회하는 식민지 재류일본인들을 귀환시켰다.³⁶⁾

32) 전전의 육군성과 해군성은 패전 후 각각 제1복원성과 제2복원성으로 개편되는데, 1946년 6월에 이들 두 곳이 복원청으로 통합된다. 1947년 10월 이후에는 후생성 등으로 복원업무를 이관시키고 폐지되었다.

33) 高杉志緒, 2011, 『日本に引揚げた人々—博多港引揚者・援護者聞書』 図書出版のふ工房, 8~11쪽.

34) 引揚援護廳, 1950, 『引揚援護の記録』, 28쪽.

35) 1952년 10월에 중국정부(北京)의 잔류일본인 귀국원조표명. 1953년 3월, 중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해 집단귀환이 재개되어 23일에 2만 6천여 명이 마이쓰루에 도착했다. 당시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이 내용을 제1면 전면기사로 실었다.

36) 그 수치는 1961년 12월을 기준으로 660만 명을 상회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700만 명이 상이라고 추산하기도 한다. 당시 일본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厚生省編集, 2000, 『引揚援護の記録』, 『續・引揚援護の記録』, 『續々・引揚援護の記録』 クレス出版, 通計資料参照.)

또한 필자의 견학조사에 의하면, 소비에트는 1956년 12월 26일, 나호토크를 출발지로 해서 마이쓰루항에 도착한 흥안선(興安丸)이 최후의 귀환선이다. 중국에서는 1958년 9월7일, 진강(眞岡)에서 출발해 마이쓰루에 도착한 백산선(白山丸)이 마지막이다.(舞鶴入港の引揚船一覽表を參考)

그러나 귀환사업은 외지 재류일본인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작업만이 아니었다. 제일외국인의 송출 역시 귀환사업의 일환으로 GHQ는 1945년 11월에 외지 일본인들의 수용과 함께 일본 국내의 ‘비일본인’의 송출귀환에 관한 방침을 결정했던 것이다. 중국, 대만, 조선, 오키나와 등지에 거주지를 갖고서 본토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주요 대상으로 독일, 이탈리아인들도 해당되었다. 그리고 그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일본인의 등록 작업이 진행되는데, 현재의 외국인등록법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 사업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1950년 11월을 기점으로 종료되고 약 130만 명이 송출되었다.

일본 국가 권위의 최고의 표현,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제가 영구히 유지될 것이고 또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상 민족 통합을 근원에 두고 지켜져 오던 것으로 군주주의·인민주권의 대립을 넘어서 군민일체(君民一體)의 일본민족 공동체가 지녀온 불변의 본질입니다. 외지이종족(外地異種族)이 사라진 순수 일본(純粹日本)으로 회귀한 지금, 이를 저버린다면 일본민족의 역사적 개성과 정신의 독립은 소멸될 겁니다.³⁷⁾

1946년 천장절에 행해진 남바라 시게루(南原繁)의 연설이다. 일본민족의 기원과 전통을 내세우며 천황 중심의 순수 일본인에 의한 신일본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월 1일에 행해진 천황의 ‘인간 선언’에서는 타민족을 일본사회에서 배제하고 신일본 건설을 위한 일본국민의 재편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기도 하다.³⁸⁾ 다시 말해서 순수 일본인으로 표현되는 단일민족 신화를 투사해 ‘전후일본’은 국가적 재건을 피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후일본의 민족내셔널리즘의 형성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귀환사업(引揚事業)’이라는 일본국 안팎으로의 대대적인 민족 대이동이다.

37) 南原繁, 1946, 「天長節一記念祝典における演述」, 『南原繁著作集第7巻』岩波書店, 58쪽.

38) 박진우, 2010, 「전후 일본의 단일민족론과 상징천황제」, 『日本思想』제18호, 7~8쪽.

지금까지 귀환사업은 일본의 패전으로 식민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본토 일본으로 귀환시키는 작업으로만 인지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감행되었던 귀환사업은 외지 일본인들의 '귀환'과 내지 외국인들의 '송출'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는 귀환사업이 전후일본의 민족내셔널리즘을 도모하는 데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남바라의 "외지이종족이 사라진 순수일본으로 회귀"라는 말 역시 이러한 귀환사업의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전후일본이 회복해야 할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원형을 아시아제국, 특히 중국이나 조선에서 구하는 경향이 있었다.³⁹⁾ 다시 말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제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모델로 연구하는 것으로 그 의도에는 점령상황에 저항하는 반미정신이 있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여기서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의 언설⁴⁰⁾이 발단이 되어 전후의 국민문학논쟁이 활성화되게 된 사정⁴¹⁾을 논할 여유는 없다. 필자의 관심은 그러한 논쟁의 전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문학자들의 언설, 예를 들어 중국의 혁명이나 노신(魯迅)의 저항정신이야말로 본받아야 할 정신이라는 다케우치의 논조⁴²⁾나, 「국민문학의 과제」라는 테마아래 식민지하의 조선청년들의

39) 예를 들어 인도에서 개척된 태평양문제조사회의 국제회의에서 민족자결과 독립, 서양의 지배에 대한 동양의 저항 등을 논의한 것에 주목한 일본은, 서양근대에 대한 재고와 아시아의 재평가에 들어간다. 그리고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이라는 특집을 기획해서 「중앙공론(中央公論)」(1951년 1월호)에 발표했다. 이 때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와 시미즈 이쿠타로(清水幾太郎)의 일본인론(日本人論)이나 일본의 내셔널리즘론이 공론화되기 시작한다. (小熊英二, 2002, 『〈民主〉と〈愛國〉 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新曜社, 第7章 참고.)

40) 竹內好, 1951, 「近代主義と民族の問題」, 『文學』9월호.

여기서 다케우치는 "근대주의란 민족을 사고의 통로로 포함하지 않고 혹은 배제한 것으로,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근대주의자들은 유혈의 민족주의를 비켜서 지나갔다.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내셔널리즘의 울트라화를 자신의 책임 밖에 둔 것이다"라고 지적, 문학에 매개로 하여 민족의 독립을 주장했다.

41) 정치적, 문학적인 입장의 차이로 인해 다케우치의 국민문학론은 우파와 좌파의 비판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논객은 후쿠다 쓰네타리(福田恆存) 『文學界』1952.9)와 노마 히로시(野間宏) 『人民文學』1952.9)이다. 같은 시기에 「국민문학에 대해서(國民文學について)」라는 동제목으로 다케우치의 비판이 이루어졌다.

42) 竹內好, 1951, 「近代主義と民族の問題」, 『文學』9월호. 그리고 「ナショナリズムと社會革命」(『人間』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김달수의 『현해탄(玄海灘)』을 그 모델로 하면서⁴³⁾ 패전 이전의 식민지주의에 의해 피억압민족이 겪었던 현실이 전후일본의 현실을 상징한다는 식으로 평가하며 서양에 저항하는 동양과 같은 구도를 만들어 점령상황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구했던 당시의 담론⁴⁴⁾에 방점을 두고 싶다.

아베는 이 당시 『인민문학(人民文學)』 그룹에 소속되어 르포르타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로, 여러 지면을 빌려 국민문학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었다. 여기서 아베는 “최근 민족문학(국민문학)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듯이 보인다”면서 민족, 국민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하에 처해있는 현실 상황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국민문학이란 국민이 요구하는 문학이다. 그리고 국민은 문학을 포함하여 식민지화의 위기, 전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고, 혹은 그것과 맞설 용기를 내게 해주길 바란다. 여러 억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은 노동자 대중이다.⁴⁵⁾

철저히 대중 노동자를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점으로, 이와 함께 일본

7월호.

43) 『신일본문학(新日本文學)』에 발표된 『현해탄(玄海灘)』(1952.1~1953.11)은 일본문학협회가 1954년도에 「국민문학의 과제(國民文學の課題)」라는 테마로 개최한 대회에서 「민족의 독립(民族の獨立)」이라는 과제가 정면에서 취급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함과 동시에 현대의 일본국민이 처해있는 현실과 아주 공통된 것이 많다고 지적되었다.

44) 역사교과서 중에서 일본이 아시아에 초래한 법적인 가해사실에 대한 서술이 사라지는 등, 전후일본에서 ‘식민지로서의 동아시아’의 모습이 망각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現代思想』總特集戰後東アジアとアメリカの存在、2001년 7월호와 佐藤泉, 2005, 『戦後批評のメタヒストリー：近代を記憶する場』, 岩波書店, 참고)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일본의 패전과 미국의 점령이라는 복잡한 힘의 관계가 얽혀있고 여기서 가법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정책을 배제하면서 동아시아의 독립과 자유를 마치 ‘거울’처럼 다루고 있는 언설이 ‘아시아의 재평가’라는 형태로 확산되어 가는 양상은, 일본의 전쟁책임이나 역사관에 굴절을 야기시킨 요인이라 지적할 수 있고, 다케우치의 발언은 그 중심에서 논하여지고 있었다.

45) 安部公房, 1952, 「文學理論の確立のために」, 『文學』6월호. 인용은 『安部公房全集003』(新潮社 1997년판에 의함. 231쪽.

의 전통이나 혈연과 같은 감상적인 민족론은 전혀 무력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다케우치 요시미의 민족관은 서정적인 면이 있고, 또 노마 히로시(野間宏)와 후쿠다 쓰네아리(福田恆存)가 다케우치를 비판하는 논을 발표한 후에 아베는 특히 후쿠다의 말을 예로 들며 “대중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⁴⁶⁾ 거라고 다소 과격한 논조로 비평한다.⁴⁷⁾ 후쿠다의 말은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으로 특히 중국에 관한 후쿠다의 의견이 아베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 즉 후쿠다가 “나는 전혀 중국을 경멸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같은 후진국이라는 명목 아래 공동의 운명을 느끼는 것은 일본의 역사를 무시하고 말살하는 폭거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한 말을, 일본고유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는 일본역사는 중국과 공동의 운명을 담당하는 것을 떳떳이 여기지 않고 혁명이나 해방은 있을 수 없다는 투라고 비난한다.

아베의 이러한 논조는 전후일본의 참모습을 동양의 저항정신, 즉 반서양적인 중국의 모습에서 도출해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정확한 아베의 시각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952년 5월 30일에 그 전해에 발생했던 도쿄의 5·30사건을 요란하게 기념하려는 여론에 대해서 다수의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분석한 아베는 데모대에 의한 사건과 사망자만을 사건화하고 있는 보도를 비난한다.⁴⁸⁾ 그리고 신문은 발광해버렸다고 더는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어느 신문에서도 다루지 않았는데, 5·30은 상해의 일본인 방직공장 파업에 대한 탄압을 계기로 중국에 혁명

46) 安部公房, 1952, 「國民文學の問題によせて」, 『文學』11월호. 인용은 『安部公房全集003』(新潮社 1997년판)에 의함. 315~316쪽.

47) 노마 히로시의 다케우치비판에 관해서는 다케우치의 의견을 일견 인정하면서 그 결점을 비판하고 실천적으로 국민문학을 전진시키자는 입장에서 노마씨는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후쿠다와 비교하면서 노마 히로시의 입장에 찬동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자세는 네거티브하게 평가되기도 한다. (本多秋五, 1965, 『物語戦後文學史(全)』 新潮社, 486쪽. 그리고 鳥羽耕史, 1997, 「國境の思考—安部公房のナショナルイデオロギイ」, 『文芸と批評』5월호. 참조)

48) 安部公房, 1952, 「夜陰の騷擾—五・三〇事件をめぐる」, 『安部公房全集003』 新潮社1997년판, 232~240쪽.

이 시작된 기념일이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어투로 말을 끝내고 있다. 중국에서의 혁명을 어디까지나 대중, 노동자의 혁명정신에 의한 성과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식민지와 같은 현실에 저항하는 정신을 인정하는 입장은 같지만, 그것을 과거 일본의 지배 하에서 고통을 받던 중국의 노동자들이 일본에 저항한 것처럼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견지이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서 과거 억압과 피억압의 역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아베는 간과하지 않고 있다.

『끓주런 피부』와 『변형의 기록』으로 돌아가 보겠다. 일본인 부인에게 복수를 하고서 멀리 도망가 있던 주인공은 자신도 그 여자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현재의 자기자신을 과거 만주로 되돌려 놓고 지배계급인 일본인에게 복수한다는 가공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임을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자기도 같은 일본인이고 만주에서는 제국의 식민이라는 침략자로 불렸던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식민자의 모습은 전후일본의 미국점령이 철회화되는 도중에 국가를 잃어버릴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하는 불안한 상황을 지내면서 그 폭력성을 실감한 것에서 기인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각하면서 겪게 되는 변화를 아베는 자신의 출신지를 쓸 때에 도쿄라고 써야 할지, 심양(봉천의 현재명)이라고 해야 할지, 늘 망설여진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심양을 출신지라고 정해 버릴 수 없는 이유인데,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일본인은 그곳에서 식민지 지배민족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나의 의식에는 그러한 생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현실과 의식은 별개이다. 지배민족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 있는 미국인인데, 그 토지의 인간을 인간으로서 보지 않고 식물이나 풍경처럼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토지의 인간은 풍경의 일부인 것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러한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타자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자신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다.

식민지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⁴⁹⁾

이 내용은 아베의 만주에 관한 기록으로서의 최초기의 것으로 인용에서처럼 만주를 고향이라고 말 할 수는 없으나 아직까지 꿈을 꾸면 그 꿈의 3분의 1은 심양이 나온다며 글을 맺고 있다. 이러한 심경을 밝힌 후 동년(1954) 4월에 쓴 『변형의 기록』에서 만주의 기록이 사자들의 마을로 변하게 되는 것에는 아베의 심경적인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죽어서 영혼이 되고 난 후에나 보이기 시작하는 사자들의 존재. 풍경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도 특정할 수 없는 것처럼 사자들도 실재한다고는 해도 그 모습을 특정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중국인 마을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이미 아무도 없고 사자가 된 사람들은 일본인 장교들을 노려보고 서 있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터인 그들을 상대로 장교들은 싸우기 시작한다. 그들이 죽어있었다는 표현은 인용부의 아베의 말처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식물이나 풍경처럼 인식”했던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편, 주인공이 사자로 변형되어 일본을 향해 가는 설정은 그러한 피식민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겨우 인식되기 시작한 또 다른 피식민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만주에서가 아니라 현실의 전후일본인이 처한 피식민자의 경우를 의식한 것이다.

또한 산자의 몸을 빼앗아서 삶을 지속시켜 온 각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장교의 행동을 지배하는, 식민주의의 실현자 혹은 정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각하가 “일본인 개척단 소년”의 육체를 한 채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그의 행방이 일본을 향해 갔음과 동시에 제국일본의 상징인 천황의 명령이 전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할 것이다.⁵⁰⁾

49) 安部公房, 1954, 『瀋陽十七年』(『旅』 2월 1일자). 인용은 『安部公房全集004』新潮社1997년판, 87쪽. 여기서 아베는 당시까지 어느 때에는 「도쿄(東京)」, 또 어느 때에는 「심양(瀋陽)」, 그리고 때때로 「태어난 곳은 도쿄, 자란 곳은 심양(生れ・東京、育ち・瀋陽)」이라고 썼다고 밝히고 있다. 그 비율은 반반이었다고 한다.

50) 필자는 또한 이러한 결말이 식민자의 위치에서 피할 수 없는 아베 고보와 같은 귀환자의 처지를 의미한다고도 생각한다. 이에 관해서는 귀환자들의 ‘전후상’에 관해 좀 더 먼

4. 귀환자의 신체적 기억

『탐정과 나(探偵と彼)』는 1956년 『신여원(新女苑)』 1월호에 게재된 작품으로, 소학교 6학년의 일본인 소년 ‘나’가 가난한 중국인 동년배 학생 ‘그’의 행적을 쫓는 이야기이다. 작중의 ‘나’는 탐정소설이나 모험소설을 탐독하면서 머릿속으로 온통 괴상한 공상만을 하며 주변 모든 것이 비밀스럽고 의문스럽다는 생각에 빠져있었다. 그러던 중에 ‘나’는 ‘그’를 발견한다. 발견했다는 것은 이전까지 ‘그’와는 같은 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무관심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의 집까지 뒤를 밟아 간 ‘나’는 그곳에서 수상한 남자를 보게 되고 “저 남자는 분명히 아편환자일거야”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나’에게 단순히 일본인들의 폐쇄된 환경과 조계(租界) 외부에 떠돌고 있는 여러 소문에 싸여있는, 탐정에게 있어서 범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다가 간장을 보관해 놓은 통을 아편이 숨겨져 있는 장소로 오해한 ‘나’는 그 통에 구멍들을 뚫어 버리고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후 ‘나’는 학교에서 영웅으로 취급받게 되고 ‘그’는 전학을 가 버린다. ‘나’는 영웅이 되고 ‘그’가 사라져버리게 된 결과에 대해서 소년은 내가 왜 ‘나’이고 그가 왜 ‘그’였던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건조한 날에 불어오는 모래 바람은 ‘나’를 불안에 빠트리게 된다.

1) 만주에 관한 신체화된 기억

작품 『탐정과 나』에서 화자인 ‘나’는 아베 고보의 유소년기의 모습을 모델로 하고 있다.

www.kci.go.kr

마을 이름은 분명치 않으나 가령 H라고 해 두자. 당시 나는 H에 있는 일 본인 소학교 6학년이었다. 학교는 조계-조계리는 말을 사용했는지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하튼 그것과 비슷한 곳에서 벗어난 곳에 있었고, 길을 건너면 바로 뒤쪽으로 오래된 중국인 마을이 있었다. 그래서 (학교-필자주) 뒷문의 빗장은 풀지 못하도록 못질을 해놨고, 게다가 그 위에 가시가 달린 철조망을 둘러놓았다. 그러나 담을 넘어오는 아이들이 대여섯 명은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은 조계가 생기기 이전부터 살고 있었고, 조계가 생겨서도 이 쪽으로 옮겨오지 못한 가난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꾼의 자식들이 다. 군대의 보호 아래 새롭게 들어온 어용상인이나 관리, 철도종사원들의 자식들과 자연히 구별이 생겨났다. 내가 희생자로 고른 그 소년도 담을 넘어 오던 건너편에 사는 아이들 중 하나였다.⁵¹⁾ (강조는 본문의 방점)

“마을 이름을 가령 H라고 해” 든다고는 하지만 작중의 마을이 아베가 만주에서 살던 봉천(Hoten)을 연상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게다가 탐정소설에 폭 빠져서 지냈다고 나오는 ‘나’는 유년기에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을 탐독하고 그 내용을 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들려주었던 아베의 모습과도 오버랩된다.⁵²⁾ 봉천에서 아베가 통학했던 치요다소학교(현재 동북육영학교)는 중국인 아이들도 재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⁵³⁾ 한주에 1시간정도 만주어(중국어) 공부도 했었는데, 학생들은 거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고 거의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아베의 경우도 중학교까지 중국어를 배웠는데, 4학년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간단한 회화를 기억할 뿐이고 또 일 본어로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했기에 잊어버렸다고 한다.⁵⁴⁾

51) 『探偵と彼』 『安部公房全作品』04, 新潮社1972년판, 300~301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작품명과 페이지수만 표기.

52) 『安部公房伝記』 『安部公房全集030』 新潮社2009년판, 617쪽.

53) 만주 치요다소학교(千代田小學校) 동창회에서 편찬된 『치요다, 최후의 학생들(千代田・最後の生徒たち)』, 『열세 살의 증언(十三歳の証言)』의 편집자 대표인 엔도 카즈코(遠藤和子)씨의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토 마사히로(加藤正宏)씨의 웹사이트(<http://www.geocities.jp/mmkmato751/tiyo00.html>) 내의 「구치요다소학교 일대와 구미나미 이치조길(旧千代田小學校界隈と旧南一條通)」 참조.

54) 필자는 아베의 만주에서의 소학교, 중학교 동급생인 치바 다네후미(千葉胤文)씨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치바씨는 아베가 중국어통번역자격증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도쿄에서 함께 만났을 때에도 아베가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도

이렇게 잊혀져가는 만주어처럼, 만주에서의 생활이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상황과 어긋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아베가 다녔던 소학교 주변에는 정식 명칭의 조계는 없었다. “조계 비슷한 곳”이라고 설정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으로, 조계와 같은 기능을 하는 특별지구를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과 서양이 독립적으로 지배권을 가진 조계와 비슷한 구역으로 철도부속지가 있는데, 봉천 시가지의 대부분은 철도부속지로 설정되어 신시가지라고 해서 넓은 일본인거리가 형성되어 있었다.⁵⁵⁾ 아베는 아버지 아베 아사키치(安部淺吉)가 남만주의학당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철사택(葵町, 현재 南寧南街)에 살고 있었다. 아베가 중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퇴직하고 아베의원을 개업하기 위해 이사했던 곳은 봉천시 야마토구 고타마(大和區紅葉町)이다. 그리고 아베가 다녔던 소학교는 만주의대(아버지가 다녔던 대학)에서 가까운, 신시가지 중심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곳은 중국인들이 모여서 살던 ‘성내(성벽)’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⁵⁶⁾ 작품의 인용에서처럼 빗장으로 뒷문이 폐쇄되고 못이나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던 학교에서 도로를 건너면 바로 뒤쪽에 오래된 중국인 마을이 있었고 담을 넘어오는 중국인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은 아베 고보의 퇴색된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밭 밑에서 사각사각 아주 큰 소리를 내는 모래……어디선가 함창하는 소리가 들린다. ……모래, 끝없이 계속되는 모래 길……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2008월 9월 27일 도쿄에서의 인터뷰)

- 55) 아베가 봉천에 살던 1937년 11월 당시의 봉천 만철부속지에는 총인구 93530명 중에 내지인(일본인)이 70073명, 만주국인(중국인)이 21217명, 조선인이 1727명, 외국인(러시아인이 다수)이 513명 살았다. 봉천은 일본인 비율이 높은 곳일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일본인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南滿洲鐵道總裁室地方部殘務整理委員會, 1977, 『滿鐵附屬地經營沿革全史』 龍溪書舎)
- 56) 봉천제2중학교에 입학했던 아베는 일본인 친구들이 방문하는 게 금지되어 있던 중국인 거리(城內·城壁)에 자주 놀러갔다고 한다. 봉천제2중학교도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신시가지 중심부(현재 심양시 南京南街 주변)에 있었고, 중국인거리까지는 상당히 멀리 가야 한다.(아베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가토 마사히로(加藤正宏)의 「심양사적 탐방(瀋陽史跡探訪)」참조. 웹사이트 <http://www.geocities.jp/mmkato75/shenyang6.html>).

소나무 가로수길이 펼쳐지고, 그 건너편에 훨씬 먼 뒤쪽으로 교사가 보인다. 아니 교사가 그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모래, 사각사각 아주 큰 소리를 내는 모래……문득 떠오른다. 조각조각 찢긴 뼈라, 버스 대합실에 붙어 있던 뼈라, “연습을 멈춰주세요, 시끄러워서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조각난 것은 그였다)……모래, 모래, 숨이 멈출 것 같다.⁵⁷⁾

숨이 막힐 듯한 모래로 뒤덮인 황야, 주변은 적막하게 메말라 있을 뿐으로 “거리는 건조하고 불에 타서 새하얀 먼지바람이 지면에 회오리치고 있었다”⁵⁸⁾ 또는 “회오리바람이 지면을 스치면서 서로 맞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남쪽에서 좌르르하고 모래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다”⁵⁹⁾처럼, 건조한 바람과 허얇게 회오리치는 모래 바람, 메마른 풍토는 아베의 작품이 만주를 원풍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만주표상으로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풍토적인 특징은 갑자기 되살아나는 신체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일상 속에서 잊혀졌던 예전의 기억을 소환한다.

태풍이 지나가고 2, 3일째에 드물게 건조한 날들이 이어졌다. 바람이 불면 증발한 물웅덩이로부터 석양을 등진 계분소 주변처럼 하얀 먼지가 회오리친다. 얼굴을 숙이고 실눈을 하고 걸으면서 문득 나는 불안해 졌다. 이유를 찾으려고 오래된 기억의 내부를 더듬어 본다. 그러자 돌연, 갑자기 불안해 진 것처럼, 실눈에 비치는 이 작은 풍경이 오래 전 추억과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내가 자랐던 마을의 풍경이다. 그 마을은 연중 건조하고 모래 바람이 불고, 늘 얼굴을 숙이고 실눈으로 걸어야만 했다. 울퉁불퉁한 땅을 밟으며 걷는 양 발의 구두와 먼지를 뒤집어 쓴 기쁨에 콩 나듯 나 있는 잡초가 그 마을 풍경의 전부였다. 나는 기억 속을 걷고 있는 것이었다.⁶⁰⁾

57) 「ごろつき」『安部公房全作品』05, 新潮社1972년판, 242쪽.

58) 「飢えた皮膚」, 163쪽.

59) 「変形の記録」, 179쪽.

60) 「探偵と彼」, 299~300쪽.

이렇게 건조한 날, 바람에 하얀 먼지가 회오리치는 거리를 걷고 있자니 불안은 익숙한 풍경과 함께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감각은 다름 아닌 만주를 향한 노스텔지어로서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신체화된 기억으로 기능하게 된다.

2) 살풍경한 노스텔지어

아베 고보가 만주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1954년 「심양 17년(瀋陽十七年)」을 비롯해 「봉천(奉天)」(『日本經濟新聞』 1955년 1월 6일자), 「내 마음 속의 만주(私の中の満洲)」(『日本讀書新聞』 1957년 4월 15일자)와 같은 기록이 최초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짧은 단상도 이후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럼 아베는 만주에서의 회상을 어떤 식으로 말해 놓고 있을까. 우선, 봉천이라는 장소는 살풍경한 만주의 풍경 중에서도 더욱 황량한 마을로 묘사되고 있다.

먼지투성이의 건조한, 수목도 별도 없는 마을. 일정한 흐름도 없이 흘러가는 황토색의 탁한 강물. 상징적으로 세워져 있는 급수탑. 마을의 남쪽으로 펼쳐져 있는 작은 사막. 푸른, 강렬한 햇볕이 비출 틈도 없는 넓은 하늘. 그 하늘의 중압감에 눌려 있는 듯이 늘어져있는 거무티티한 기와집들. 집이라기보다 완구상자를 뒤집어 놓은 듯이 뒤죽박죽한 집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코크스와 연기를 내뿜는 공장지대가 빼곡하게 늘어서 있다. 마을 전체가 프라이팬 속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여름. 아카시아 잎이 하얗게 주글주글 해져 있는 여름. 그리고 영하 20도가 되어 면도날을 머금은 듯한 칼바람이 부는 겨울. 사람들이 동사하는 겨울.⁶¹⁾

인용에 이어서 아베는 이렇게 살풍경한 봉천이지만 왜 그런지 더 그곳에 빠져드는 이유는 역시나 고향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61) 「奉天—あの山あの川」 『日本經濟新聞』 1955년 1월 6일자 「文化」란 연재 컬럼. 인용은 『安部公房全集004』 新潮社1997년판, 484쪽.

러면서도 “고향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말을 잇는다. 또한 다행히 자신의 아버지는 제국일본의 지배 권력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부터 개척민으로 이주했었는데, 말 그대로의 개척민과 식민정책에 의한 개척민은 천지차이가 있다며⁶²⁾, 만주에서의 자신의 입장차를 변호해 놓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아베가 어렸을 때의 봉천은 사방팔방으로 황무지와 같은 황야일 뿐이었는데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러 의미에서 변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절의 시민이라고는 해도 일본인 전체는 무장한 침략이민자에 불과하고 우리(일본인)는 봉천을 고향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반추한다. 그리고 이제 봉천은 이미 심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눈부신 성장을 해오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가 되었고, 이전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관해서 아베는 상당히 감동적인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심양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무의미하게 생각되어 진다고도 회상한다.⁶³⁾ 이러한 연유로 아베는 이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마치 고향 주변을 방황하면서 끝내 안착할 수 없는 자신을 “아시아의 망령”⁶⁴⁾으로 규정하게 된다.

봉천이나 만주를 생각할 때, 아베는 끊임없이 ‘고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 『탐정과 나』에서 “왜 내가 ‘나’이고 그는 ‘그’였던가” 되물게 되는 이유도 이러한 연유에서 일 것이다. 아베가 “만주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철저한 전후의 자각정도일 것이다”⁶⁵⁾라고 하듯이, 아베의 만주는 어디까지나 전후일본에서 재형성된 노스텔지어의 공간으로 변해 간다. ‘고향’이라는 개념이 인류가 이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19세기후반의 문명화와 산업화와 함께 인식되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는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는 “이동으로

62) 『瀋陽十七年』-『旅』1954년 2월 1일. 인용은 『安部公房全集004』新潮社1997년판, 87쪽.

63) 『瀋陽十七年』, 앞의 책, 90~91쪽.

64) 『奉天—あの山あの川』, 앞의 책, 484쪽.

65) 『私の中の満洲』『日本讀書新聞』1957.4.15. 인용은 『安部公房全集007』新潮社1998년판, 138쪽.

인해 태어난 곳과 지금까지 거주하던 곳이 고향으로 규정되어지고 이와 동시에 고향을 회상하게 되는 자신의 현 위치, 곧 장소가 자각된다”고 한다. 이처럼 고향은 마치 자신의 기원의 땅처럼 생각되어지고 회귀해야 할 장소처럼 구상화되는 경향이 있다.⁶⁶⁾ 노스텔지어라는 말도 원래 그러한 가공의 장소를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인상을 통해 재구성한 것으로 자기의 상상 위에 만들어진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라는 것은 늘 이중적인 구도를 포함하게 된다. 과거의 장소를 반추함과 동시에 자신의 현 위치를 자각하는 구도로, 이는 반대로 현재의 어느 한 이미지가 자극제가 되어 새로운 과거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기도 한다.

아베 고보가 자신의 만주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러한 구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에서는 실감할 수 없었던 ‘무장한 침략자’ 일본인이라는 자각이 전후일본의 식민지상황을 목하에 두고 선명해지고, 폐허로 변한 풍경 속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 만주의 황야로 돌아가 있는 듯한 감각이 신체적 기억으로 되살아난다. 아베의 만주에 대한 표상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모래 바람이나 황무지 같은 황야의 이미지가 만주와 전후일본 두 공간을 이중적으로 나타내는 듯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때문이다.⁶⁷⁾ 만주의 살풍경 중에서 회오리치는 모래의 건조한 바람이 부는 풍경이 실제 만주의 대표적인 풍경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이 하나의 이미지로 축약되게 된 경위에는 아베의 식민지이자 침략 민족으로서의 자각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를 그리움이나 애정이 넘치는 곳으로 표현할 수 없게 되고, 회오리치는 모

66) 成田龍一, 1998, 『「故郷」という物語』吉川弘文館.

67) 아베의 소위 애매한 고향관은 만주에서의 식민자로서의 인식 결여에 의한 한계로도 지적되고 있다. 단순한 노스텔지어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상실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특히 『끝난 길의 이정표』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가 고향상실자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는 관점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하의 선행론 참조. 鶴田欣也, 1974, 『「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におけるアンビバレンス』 『日本近代文學』20; 田中裕之, 1994, 『安部公房「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考』 『近代文學試論』32; 蘆田英治, 2000, 『螺旋の神-安部公房「<眞善美社版> 終りし道の標へに」試論』 『論樹』14.; 吳美姪, 2003, 『安部公房「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論』 『國語と國文學』80-12.

래의 건조한 바람으로밖에 형용할 수 없는 살풍경한 노스텔지어만이 만주의 표상으로 남게 된 것이다.⁶⁸⁾

5. 맺음말

아베 고보의 고향 상실자로서의 시점은 패전과 귀환(만주-일본)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따른 개인적 체험에서 발로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좀 더 직접적인 요인은 그의 내면적 인식 변화, 즉 아베 고보의 일본인에 대한 인식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패전으로 만주에서 일본으로 강제 귀송 조치에 따라야 했던 아베 고보는 실제 자신의 출신이 초래한 아이덴티티상의 균열을 겪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다루지 못했지만, 전후일본 사회에서 만주일본인이라는 출신이 갖는 이질감과 만주에서 일본인이었던 자신의 과거 사이에서 극심한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침략자이자 식민자였던 만주일본인이 갖는 위화감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아베는 같은 일본인 사이에 벌어지는 복수극을 그린 『굶주린 피부』라는 작품을 통해 그러한 내적 갈등(혼란)을 겪고 있는 심경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신이 계획한 복수가 성공한 듯해도 스스로를 향한 자괴감은 일본인이라는 출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결국 아베는 식민주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을 폭력성을 통해 묘사하고 풍자하게 되는데, 식민지의 풍경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피식민자의 입장을 사자(死者)로 그려낸 것이다. 『변형의 기록』이 그것으로, 이는 과거 만주와 전후일본의 피식민자의

68) 아베 고보와 같은 귀환작가인 기요미즈 다카유키(清岡卓行)나 미키 다쿠(三木卓), 우노 고이치로(宇野鴻一郎),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寛之) 등은 각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대륙, 만주, 조선에 관해 서사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베와는 다르게 살풍경한 노스텔지어를 그려내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귀환작가들의 고향 인식을 검토하여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향후 필자의 과제이기도 하다.

입장을 이중적으로 투영한 것이기도 하다. 즉 아베는 전후일본의 미군점령의 현실을 식민지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직시하고 만주에서의 일본인이 갖고 있던 존재감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만주를 고향이라고 여길 수 없는, 고향 상실자로서의 위치감각을 인지하게 된다. 『탐정과 나』에서 묘사되듯이 건조한 바람과 회오리치는 모래 바람처럼 황량하고 메마른 만주의 표상은 실제 만주의 풍토를 이루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침략자 일본인이라는 사실관계 때문에 오는 죄책감에 그리움이 넘치는 정겨운 기억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아베 고보의 인식 변화에 따른 노스텔지어의 형성과정으로, 황량하고 살풍경한 만주의 이미지는 아베 자신의 표상될 수 없는 고향에 대한 내면 풍경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安部公房, 1972, 「闖入者」 『安部公房全作品』02, 新潮社.
 _____, 1972, 「飢えた皮膚」 『安部公房全作品』02, 新潮社.
 _____, 1972, 「変形の記録」 『安部公房全作品』05, 新潮社.
 _____, 1972, 「探偵と彼」 『安部公房全作品』04, 新潮社.
 _____, 1972, 「ごろつき」 『安部公房全作品』05, 新潮社.
 _____, 1997, 「文學理論の確立のために」 『安部公房全集003』 新潮社.
 _____, 1997, 「國民文學の問題によせて」 『安部公房全集003』 新潮社.
 _____, 1997, 「夜陰の騷擾一五・三〇事件をめぐって」 『安部公房全集003』 新潮社.
 _____, 1997, 「瀋陽十七年」 『安部公房全集004』 新潮社.
 _____, 1997, 「奉天—あの山あの川」 『安部公房全集004』 新潮社.
 _____, 1997, 「瀋陽十七年」—「旅」 『安部公房全集004』 新潮社.
 _____, 1997, 「私の中の満洲」 『安部公房全集007』 新潮社.
 _____, 2009, 「安部公房伝記」 『安部公房全集030』 新潮社.
 蘭信三, 2000, 「『引揚援護の記録』解説」, 厚生省編集『續々・引揚援護の記録』 クレス出版.
 有村隆廣, 1998, 「安部公房の最初の作品集『壁』」 『言語文化論究』9.
 市野川容孝, 2007, 「難民とはなにか」 『難民』 岩波書店.
 石橋佐代子, 2003, 「『存在象徴主義』と『ひとつの世界』」 『名古屋近代文學研究』20.
 磯田光一, 1983, 「占領の二重構造」 『戦後史の空間』 新潮社.
 _____, 1983, 「性とそのタブ」 『戦後史の空間』 新潮社.
 五百旗頭眞, 2001, 「保守政治による再生」 『日本の近代6 戦争・占領・講和』 中央公論
 新社.
 小熊英二, 2002, 『〈民主〉と〈愛國〉 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吳美姫, 2003, 「安部公房『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論」 『國語と國文學』80-12.
 佐藤泉, 2005, 『戦後批評のメタヒストリー：近代を記憶する場』 岩波書店.
 竹内好, 1951, 「近代主義と民族の問題」 『文學』9월호.
 _____, 1951, 「ナショナリズムと社會革命」 『人間』7월호.
 高杉志緒, 2011, 『日本に引揚げられた人々—博多港引揚者・援護者聞書』 図書出版のふ工房.
 高崎達之助, 1953, 『満洲の終焉』 實業之日本社.
 田中裕之, 1994, 「安部公房『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考」 『近代文學試論』32.
 塚瀬進, 2004, 「在満日本人のなかの子供と女性」 『満洲の日本人』 吉川弘文館.
 鶴田欣也, 1974, 「『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におけるアンビレンス」 『日本近代文學』20.
 鳥羽耕史, 1997, 「國境の思考—安部公房のナショナルティ」 『文芸と批評』5월호.
 引揚援護廳, 1950, 『引揚援護の記録』.

- 厚生省編集, 2000, 『引揚援護の記録』, 『續・引揚援護の記録』, 『續々・引揚援護の記録』
クレス出版.
- 本多秋五, 1965, 『物語戦後文學史(全)』新潮社.
- 南滿洲鐵道總裁室地方部殘務整理委員會, 1977, 『滿鐵附屬地經營沿革全史』龍溪書舍.
- 成田龍一, 1998, 『「故郷」という物語』吉川弘文館.
- 南原繁, 1946, 「天長節一記念祝典における演述」, 『南原繁著作集第7卷』岩波書店.
- 蘆田英治, 2000, 「螺旋の神 安部公房『く眞善美社版> 終り道の標へに』試論」, 『論樹』14.
『朝日新聞』1950년 4월 23일, 「く連引揚完了」を發表.
- 『朝日新聞』1951년 8월 16일, 「抑留者引揚^り丹こ一項」.
- 『朝日新聞』1953년 3월 23일, 「ご苦勞様お歸りなさい」, 「心配りなのは就職」.
- 『朝日新聞』1956년 10월 20일, 「引揚^りの見通し」.
- 『滿洲日報』1930년 11월 27일, 「在滿日本婦人は此の言を何と聞く」.
- 「旧千代田小學校界限と旧南一條通」 <http://www.geocities.jp/mmkato751/tiyo00.html>
- 「瀋陽史跡探訪」 <http://www.geocities.jp/mmkato75/shenyang6.html>

■日文概要■

安部公房の「満洲」表象

- 引揚者のノスタルジア -

朴利鎭

故郷へのノスタルジアということは、二重的な構図を含む。去ってきた場所を思い返すとはいえ、自分の現位置を自覚することであり、現在のあるイメージをもって過去のことを想定するのだ。安部が自分の満洲暮らしを語る言葉にも、そのような構図が働いていることが分かる。満洲では実感できなかった<武装した侵略者>としての日本人という自覚が、戦後日本の植民地状況を目下にして鮮明になり、埃っぽい廢墟に変わっていた風景の中で乾いた風が吹いてくると、満洲の荒野に戻っているような感覚が身体化して蘇る。安部の故郷に対する表象の基調をなす砂埃や荒地のような荒野などのイメージが、満洲と戦後日本の二つの場所を二重に映すように見えてくるのは、そのような様相に起因する。満洲の殺風景で埃っぽく乾いた風景が、実に満洲の表象をなす風景でもある。しかしながら、そのように故郷へのノスタルジアを語るようになった経緯には、安部の植民者・侵略民族としての自覚が影響を与えていると言えよう。そのために、満洲を懐かしさや愛情溢れる場として表現し得なくなるはずである。ほこりっぽく乾いたという言葉しか使えないノスタルジアだけが満洲の表象として残るようになるのである。

www.kci.go.kr

キーワード：安部公房、満洲、戦後日本、植民地主義、引揚者
